

가정학적 접근을 통한 보육의 발전 방향 제시*

A Direction of Child-care Development through the View of Home Economics*

호남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윤숙현
여주대학 보육학과
교수 이미정

Dept. Child-care and Education, Honam Univ.

Prof. : Yoon Sook-Hyeon

Dept. of Young Child Care, Education & Welfare,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Prof. : Lee Mi-J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가정학의 기본 개념에 기초한 보육 |
| II. 보육연구의 가정학적 접근 | V. 요약 및 결론 |
| III. 가정학의 기본 원리에 기초한 보육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a direction of child-care development through the basic concepts of home economics which have taken charge of much parts of the studies in child-care in the early years. When the problem of child-care is studied in view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r the basic concepts of home economics, it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human ecological approach, when we study child-care, it needs to emphasiz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cro-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home and child-care. The study of child-care have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cro-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children and the macro-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home. And on the basis of this study, we must endeavor to build up the desirable environment of child-care.

Secon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household, we must be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young children, and emphasize 'the principle of love and care'. This means that the institution of child-care must be considered as a place which enlarges the merits of home and complements the defects of home through the strengthener of the function of home.

Third, on the basis of healthy family, child-care service must support and complement the function of bringing of home in view of 'total healthiness of home'. Child-care service must be offered to be able to be chosen according to

Corresponding Author: Sook-Hyeon Yoon, Department of Child-care and Education, Honam University, 59-1 Seobong-dong, Kwangsan-ku, Kwangju, 506-714, Korea Tel: 82-62-940-5413 Fax: 82-62-940-5083 E-mail: shyoon@honam.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the total conditions of family such as the employment of mother, the family life cycle, the life styl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주제어(Key Words): 인간생태학적 접근(human ecological approach), 공공가정(Institutional household), 건강가정(healthy family)

1. 서론

보육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의 학문적 체계를 갖춘 것은 오랜 일이 아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이전에 사용되었던 '탁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호뿐 아니라 교육까지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왔고(양옥승, 김영옥, 김현희, 신화식, 위영희, 이옥, 이정란, 이차숙, 정미라, 지성애, 홍혜경, 1999: 17-21), 이에 따라 보육 프로그램에 교육적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합되어 '어린 영유아의 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였다.

한편, 이 법에서는 보호자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에게 보육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영유아보육법 제1장 제3조)으로써, 이전까지 가정의 과제로 여겨졌던 양육 문제가 사회적 중요 관심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법 제정 이후 15년이 되는 200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제정 당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던 것로부터 대상에 대한 제한적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가정을 관심의 대상으로 확대시켜왔다.

이렇듯 '보육에 있어서 교육적 개념의 확대'와 '양육의 사회적 관심 증대'는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심을 두고 볼 경우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보육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면 여지를 남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교육'의 개념에는 '지적 교육'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며 이는 학령기에 해당되는 학교교육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기 보육의 전형을 가정 양육에 두고 본다면, 이와는 다른 '돌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전까지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생활을 연구 주제로 하는 가정학의 일부로 다루어져왔다. 근대 가정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Richards는 19세기 말, 가정(Home)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이자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기심을 억제하는 인격 형성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정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하는 가정학(Home Economics)은 가족의 심신의 건전한 발육을 위하여 가정을 경영하는 데 목적을 둔다(이기열, 1989)고 함으로써, 가정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일차적으로 가정의 육아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학적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 분야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보육의 母學文이 되었던 가정학의 접근방식, 기본 원리 및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적 접근이 인간생태학적 접근이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정학의 기본 원리로서 가족구성원의 성장과 발달 원리, 사랑과 돌봄의 원리를 제시할 것이며, 가정학의 보육 관련 개념으로 공공가정의 개념, 건강가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보육의 가정학적 접근을 통하여 보육 목적,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보육 방법 등 보육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보육의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보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육에 관한 개념적 함의를 도출하는 일은 앞으로 보육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II. 보육연구의 가정학적 접근

가정학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학의 발달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학은 가정생활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건강한 가족, 풍요로운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정의 인적 및 물질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학은 의·식·주 생활관리, 아동 양육, 가족 관계 등 가정생활 각 분야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며, 종합과학이다.

가정학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의 저서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학은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場, 즉 家(oikos)를 다스려야 할 규정, 법규 또는 습관(nomos)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Xenophon(B.C.430-345)은 가정학에 관한 저서에서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 기술론에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소유가 지닌 가치, 재산의 올바른 사용의 갖는 의미, 가정을 영위하는 데 대한 도덕적 책임, 소비의 절제 등을 논의(이기영, 1998)함으로써, 가치론을 포함한 관리 행동에 주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또한, Aristoteles(B.C. 384-322)는 영리론(Chrematistiks)과 가계론(Oikonomicus)을 구분하고 영리론이 가계론의 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영리기술이 요구되지만 지나친 영리 행위는 행동의 의미나 본질보다 소유나 신체적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므로, 영리기술의 사용에 절제와 관용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가계론(즉, 가정경영)에 입각한 행동에서 돌봄(care)과 관리(check)의 기능을 중시하였다(윤숙현, 1995).

근대 사회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영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가정학에 대한 관심이 퇴조되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생활환경의 파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적 의미의 가정학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1870년에 Richards는 가정을 단순한 생활의 장(場)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본적 원리를 훈련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환경을 '형성하는 자'임과 동시에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라는 점에서 환경의 통제가 인간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고, 가정학을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생활학으로서의 ecology 즉, home oekology라 명명하고자 하였다(문수재, 1993). 또한, 1902년 근대 가정학을 주도해온 미국가정학회에서는 가정학을 "인간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 환경과 법칙, 조건, 원칙들 그리고 이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그리고 특히 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학문(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02을 인용한 Buboltz, 1994를 재인용)"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유기체와 미시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9년 대한가정학회지가 발간되면서 1960년 초반의 가정학이 주로 생활의 자연과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의 과학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가정대학이 설립된 1960년대 후반에는 가정학과와 가정교육과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가정관리학과, 아동학과, 주생활학과 등으로 분화되면서 각 영역의 내용이 심화·발전되었다.

1970년대에는 각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어 각 분야별 연구가 양산되었으며, 인간발달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과학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1970년대 초 미국 가정학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으로부터 가정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가정학의 핵심이 family ecosystem이라고 하여 인간생태학적 개념을 다시 강조하였으며(강혜원, 1980),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인간생태학적 접근이 가정학에 적합한 틀임을 받아들여, '전체성', '통합성', '관련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유영주, 강완숙, 1996).

1980-90년대에 진행된 가정(관리)학의 연구들을 통하여 가정학이 고유한 학문적 대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독립된 여러 분야가 함께 묶여 있는 연합학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이옥, 1999)는 지적도 있어, 지나치게 영역별로 전문화된 가정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가정학자들의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정학은 전문영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역량강화모델(empowerment model)과 함께, 사회운동모델(social movement model)이 제시되고 있다(이기영, 1998). 사회운동모델에서는 사회적 조건의 근본적 요인과 그것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가정학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가정의 개념이나 건강가정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학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고대 사회에서나 근대 가정학의 설립 당시부터 가정학은 돌봄의 문제나 자원의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중시되었으며,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주된 관점으로 받아들여온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초기의 가정학이 총체성을 강조하였다면, 다른 분야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총체적 관점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분석과 통합이 강조되는 가정학 본래의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가정학의 기본 원리에 기초한 보육

가정학에서는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극대화'에 최종적인 목적을 둔다. 보육의 전형을 가정학으로부터 찾기 위해서는 학문의 목적이 되는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영위에 요구되는 가정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원리는 가정 이외의 다른 단위의 생활 원리와는 차이를 지닌다.

보육과 관련된 가정생활의 기본 원리로서 '가족구성원 성장 발달의 원리'와 '사랑과 돌봄의 원리'를 들 수 있다.

1. '가족구성원 성장 발달의 원리'에 기초한 보육

가정은 일차적 집단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조직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성장 발달'이 곧 가정 전체의 목표가 되는 집단이다. 이는 인간 성장 발달의 원리가 가정의 최우선의 목표가 됨을 의미한다. 영리 추구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른 이차적 집단과는 달리, 구성원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함으로써 발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정의 최종 목적이므로, 개인의 성장 발달은 여타의 목표보다 우선한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발달의 초기 단계는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시기에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결함이 나타나면 인생의 후기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보육의 주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발달 과업 특성이 무엇이며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환경조건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육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영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를 영역별 -- 신체적 운동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의 영역별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신체적 운동발달 영역에서 생후 첫 2·3년 동안 영아는 전체 몸의 크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신체 부분 간의 비율도 크게 변화된다. 또한, 이행 능력, 조작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균형 있는 영양식 제공이나 수면, 대근 운동 및 소근 운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지 발달 측면에서 대상에 대한 영속성이 획득되는 시기이며, 언어 발달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단어를 연결시킨 초기 형태의 문장형성이 가능한 시기(2세경)라는 점, 사회성 발달 및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신뢰감, 자율성, 애착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현온강, 1998: 110-115)을 고려하여 이에 초점을 맞춘 보육 환경의 구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보육의 목표, 보육 환경, 보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랑과 돌봄의 원리'에 기초한 보육

가정은 가정 이외의 조직과는 달리 '사랑과 돌봄의 원리'에 근본을 둔 단위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즉, 가정 외부의 단위가 '경제적 잣대'에 의하여 가치가 산정되는 데 반하여, 가정은 '돌봄'이 중시되는 단위이고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생산이 어려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약자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의 생산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단위이다.

영유아의 존재 자체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정적 기능의 핵심을 이룬다. 특히 생후 첫 3년 동안의 경험이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에서 성인의 관심과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일찍이, Bowlby가 정상적인 가정환경의 경험을 박탈당한

영유아의 심리적·신체적 반응과 그것에 대한 발달 장애에 관심을 두어 '모성적 양육박탈(maternal depriv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던 것도 가정 양육의 특수성에 주목한 결과라 하겠다. 그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삶의 질과 기관에서의 삶의 질을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이 기관에서 자란 아동에 비하여 자부심, 긍정적 자아개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Holmes, 이경숙 역, 2005: 75-76).

인간의 성장 발달 초기에 충분하게 제공된 사랑과 돌봄의 경험은 인간의 전생애를 거쳐 안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며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영유아 보육에서 그 어느 점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돌봄의 기능은 부모-자녀 관계, 형제 관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일 대 일 교육이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이 대 일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제공되며, 부모는 자녀 개개인의 성장 수준이나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가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더욱이 다양한 연령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이들 간의 사랑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 및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교과교육이 강조되는 학교교육과 달리 가정 양육에서 중시되는 내용은 튼튼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착한 사람이 되길 기대하는 것과 같은 전인교육적 특성을 갖는다(김호권, 2001: 106-108). 이와 같은 가정 양육의 특성은 부모의 잘못된 지식이나 태도 역시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생활에서는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 사랑과 돌봄의 원리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생활의 고유한 원리는 가정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모든 사회적 단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정 양육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되는 가정적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경험의 동질화'를 이루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IV. 가정학의 기본 개념에 기초한 보육

1. '공공가정의 개념'에서 본 보육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정'의 개념을 새롭게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이

에 따라 독일가정관리학회에서는 1986년 기센에서 열린 독일가정관리학회 총회의 주장에 따라 공공가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1990년대 우리나라의 가정학에서도 이 개념이 소개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가정학적 개념의 하나가 공공가정이다.

1) 공공가정의 개념

현대 사회에서 가정 스스로가 가정의 부양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지지·보충·대체해주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실되거나 결합된,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가정의 부양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체가 공공가정(문숙재, 송혜림, 김선희, 이기영, 김난도, 김순미, 박미석, 조희금, 1999: 21)으로서, 공공가정을 통하여 구성원 및 이용자의 건강 상태 내지는 부양 상태가 향상될 수 있다.

공공가정은 가정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경영체이며, 경우에 따라 제한된 이윤 추구가 가능하다. 이 때 제한된 이윤 추구는 경영 환경이나 재정 구조의 변화 혹은 경영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이윤이 창출되는 경우 또는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의도적인 이윤추구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제한된 의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체는 다음 회계 기간에 필요한 시설 보수, 시설 확장, 인건비,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충당할 자금, 예비비, 비상금, 그리고 재투자 등을 위한 장래를 위한 적립금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체로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자본을 제공한 주체에게 발생한 이윤을 분배하는 경영체와 달리 공공가정에서는 이용자와 근무자, 그리고 공공가정 자체에 이윤의 혜택을 피드백한다(송혜림, 1997).

예를 들면,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윤은 다음 시기의 이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소규모 공공가정을 설립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윤을 창출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 및 유인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공공가정은 그 역할에 있어서는 개별 가정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가사노동의 사회화로서 이해될 수 있지만, 사회화를 통하여 가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의 단위 중에서, 공공성을 지닌 단위를 일컫는다.

공공가정의 공공성은 가정의 부양 기능이 이용자의 구매력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 부양 활동의 위임을 영리 추구 경영체에만 맡겨 놓을 때, 그 수익 원칙에 따라 부양 기능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과 질, 가

격, 조건, 환경 등이 수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요구되는 부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을 들거나 다른 부양 경영체에 역할을 위임할 수 있는 개별가정과 달리 공공가정은 위임받은 부양 활동의 책임을 다른 시설에 또 다시 위임시킬 수 없다는 점(문숙재 외 7인, 1999: 122-123)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가정을 이용자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공공가정으로서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육아원, 아동 수용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용소, 청소년 교양교실, 모성회복시설, 모성 및 가족 상담소 등이 있고, 둘째, 노인을 위한 공공가정으로서 양로원, 노인 휴양소, 노인 수용소, 노인 상담소 등이 있으며, 셋째, 환자를 위한 공공가정으로서 병원, 요양소, 이동서비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소 등이 있다. 넷째, 장애자를 위한 공공가정으로서 장애인 수용소, 장애인 직업 훈련소와 상담소, 장애인 요양소 등이 있으며, 다섯째, 특수상황의 사람을 위한 공공가정으로서 망명자 수용소,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위한 수용소와 자활원, 일일 보호소 등이 있다. 또한, 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공가정으로서 기숙사, 식당, 후생관, 매점 등이 있다(Piorkowsky, 1992를 인용한 조희금, 1997을 재인용).

위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유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공공가정의 대표적 형태의 하나이다. 공공가정은 공공가정을 직접 이용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현대 사회를 사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하여 나타난 필연적 현상의 하나이다. 공공가정은 가정이 적절히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가정복지 혹은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가족복지의 이념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뛰어 넘어 적극적인 대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가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문숙재 외 7인, 1999: 33).

가족복지의 기능과 관련하여 공공가정의 개념은 여타의 다른 가치보다 '공공가정' 자체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 또한, 복지 서비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공공가정은 사회사업의 영역과 중첩되지만, 영리적 부양 경영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가정 원리는 일반 경영의 영역과 유사하며, 공공가정의 대화회적 기능은 보충적인 개념에 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가정은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노인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정적 기능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가정의 목표 또한 문제 해결보다는 구성원의 욕구, 특히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 욕구를 실현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김난도,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가정은 혈연에 기초한 전통적 개념의 가정인 개별가정의 원리를 확대시킨 개념의 기

능 단위로, 건강한 가정적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영리 추구의 단위와 차이를 가지며, 제한된 정도의 이윤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가정과 차이를 갖는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공공가정의 운영에서 가정적 기능의 구현에 보다 큰 중요성을 두되, 경영의 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2) 공공가정으로서의 보육시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체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들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현상이 증대되면서, 사회적 기능이 가정 내에서 수행되거나 혹은 역으로 가정적 기능이 사회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증대되어 왔는데, 가정적 기능의 사회적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공공가정으로서의 보육시설이다(문숙재 외 7인, 1999: 22).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기능 수행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나 가정의 기능 중에서 육아 기능은 가정 기기에 의한 대체가 어려운 영역으로서, 주부의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육아 관련 기능의 사회적 수행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는 보육시설의 형태 중 국공립 혹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의 경우, 시설의 기본적인 목표가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부모나 어린이 모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유형들이 공공가정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공공가정의 경영 원리는 개별 가정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삶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종 목적을 두는 가정경영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희금, 1997).

개별가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성장 발달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여 사랑과 돌봄의 원리에 근본을 둔 단위이다. 이와 같은 가정생활의 원리는 다시 비계산성, 이타성, 상호 호혜성, 인간의 윤리, 지속적인 성과 사랑, 무조건적 자녀 양육과 사회화, 헌신성 등으로 설명(정민자, 2003)될 수 있는데, 타인의 복지에 기여한 공헌도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인정되는 공간이다.

한편, 소규모 공공가정 경영체는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이윤 추구의 동기를 갖게 되며, 공공가정 이용자들은 구매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공공가정 또한 기업의 경영 원리를 경영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두경자, 2003). 즉, 공공가정으로서의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마케팅을 통하여 시설 내적 및 외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홍보 뿐 아니라 후원자 확보, 자원 활동가 모집과

관리, 모금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으로 마케팅 활동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송혜림, 김선우, 2005).

보육시설은 대체로 소집단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공공가정의 인력관리에서는 소집단 개방체계로서의 특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인력 조달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적 부문과 비공적 부문간의 연결망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외부 행사나 특별 행사의 경우 자원봉사 인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가정으로서 보육시설의 경영 목표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에 있으므로 이용자와 대면적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선발과 교육, 배치, 평가, 평가 결과의 피드백 등의 인력관리 방안이 중시될 것이다(김선희,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공공가정으로서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공공가정으로서의 보육시설에서는 정서적으로는 개별가정과 같은 정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는 개별가정보다 더 높은 정도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가정으로서의 보육시설에서는 제한된 정도의 영리 추구를 지향하므로, 경영 활동의 하위기능 전반 -- 즉 기획 관리, 마케팅, 자재 관리, 인력 관리, 업무수행 관리, 재무 관리, 통제 등에 걸쳐 기업의 경영 원리가 공공가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2. '건강가정의 개념'에서 본 보육

최근 가정의 문제는 개별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조희금, 김경신, 정미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 2005: 18-21). 건강한 가정은 바람직한 양육 기능의 수행을 기초로 하며, 건강개념의 개념은 미래의 바람직한 보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정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써 가족구성원 개인들과 전체사회를 연결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은 경제적 안정, 합리적 자원 관리,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시민의식의 육성 등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가정이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가족구성원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심준섭, 2003). 따라서 가정이 건강성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직접적 관심사가 된다.

'건강가정'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이 기본이 이루어지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 내적으로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노동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수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조희금, 박미석, 2004).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의 선행 조건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개념, 이념, 목적, 가치 등), 건강가정 정책, 건강가정 사업, 건강가정 전담부서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가정 사업의 핵심적 내용의 일부로서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송혜림, 권혜진, 기은광, 김선우, 김소영, 채화영,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세 곳(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경남 김해시 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장진경, 김연화, 한은주, 류진아, 2005), 전국적 단위로 급속하게 확대·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정(생활공동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 법은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을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및 사회적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정민자,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건강은 사회적 생산성과 비용에 직결되는 요소로서, '건강한 가정'은 가정과 사회의 지향 목표를 일컫는 총체적 개념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육이 포함되어 다루어진다는 사실은 보육 프로그램이 가정의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 다양화될 때 비로소 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연결된다.

이렇듯, 발전적인 방향에서 건강가정 개념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보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일한 표준 보육과정이 모든 가정에게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가족의 가정적 특성 -- 예컨대, 가족 생활 주기, 가족구조 및 가족크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양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보육과정의 특성이 달라지리라는 점에 감안하여, 일차적으로는 가정의 조건을 범주화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보육과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물적·인적 조건에 부합되는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각 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

을 다양화시키는 데는 많은 재정적, 인적 자원이 사용되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체제가 요구된다.

또한, 지금까지 가정학의 아동 분야에서 추구해왔던 목표였던, 개인과 가족의 행복감 증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교육, 변화 속의 인간 관계 수립 훈련, 성공적 가족생활 형성 능력 함양, 자녀 양육기술 습득(부모교육), 아동·가족 문제 상담자 훈련, 유아·청소년·성인 교육자 양성, 가족생활 연구를 통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자원 봉사, 관련 직업의 개발, 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제안, 문제 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아·장애자 가족 이해 및 적응력 훈련, 편부·편모 가족에 대한 준비 교육 등(이희자, 정영숙, 1987)의 주제들이 건강가정의 기능 확대를 위한 보육 지원 내용으로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원고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초기 연구의 많은 부분을 수행해왔던 가정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보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에 관한 개념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보육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선을 제공해준다.

가정학적 접근을 통한 보육의 방향 제시는 보육 분야에 있어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어떤 현상이든 발전 과정을 통하여 초기의 존립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 출발점을 새롭게 인식하는 일은 중요성을 갖는다.

가정학은 성립 초기부터 가정구성원의 돌봄과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환경과의 관련성이 중시되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었고, 근대 가정학의 발달에 따라 생활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부터 인간 발달 및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로 주안점이 바뀌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역량강화모델, 사회운동모델 등이 제시되었으며, 가정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공공가정의 개념이나 건강가정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학의 발달 과정이나 기본 원리 및 개념에 기초하여 보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정을 둘러싼 거시 환경과의 상호관계'가 중시될 필요가 있다. 보육은 오로지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될 수 없다. 특히 시급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우리 사회의 보육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관계와 가족을 둘러싼 노동 시장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현대의 임금 노동

시장은 남녀 모두에게 강도 높은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핵가족화된 가족 구조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 노동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구성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임금 노동 참여에 대하여 이전 시대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어 여전히 돌봄 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보육은 생태계적 접근 및 맥락적 접근이 타당하다. 즉, 가족의 가치관 문제와 가족 구조의 연구, 부모 자녀 관계 및 노동 시장의 체계를 통합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가정학)은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보육은 보육 문제가 사회와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문제, 가정 노동 및 임금 노동의 문제 등 외부 체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임에 역점을 두어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보육 서비스의 내용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보육 시설과 가정의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사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종적·횡적 상호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한 가족주의적 전통 및 최근의 급속한 개인주의적 확산과 같은 거시적 사회문화적 특색에 기초한 한국적 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에 적합한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발전에 역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의 주체가 되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최우선의 관심이 주어져야 하며, '사랑과 돌봄의 원리'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즉, 영유아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단계 특성에 기초하여 각 시기의 발달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보육 시설이 가정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가정 양육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켜야 함을 의미하는데, 영리적 목적을 비롯한 어떠한 다른 목적도 이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여성 인력의 사회적 참여로 인한 보육 대체 인력의 필요에 의하여 양적 확충을 이루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육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기능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육아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으며, 영유아의 입장에서 모성의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소홀하게 하였다. 참된 의미의 보육은 영유아에게 가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어머니 대신 사랑과 애정을 제공하는 포괄적 의미의 양육 기능을 요구하는데, 이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는 현재의 제도화된 교육 체제에서의 교사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복지적 개념의 보호 역할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육의 직접적 대

상이 되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초점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며, 바로 이점이 가정학적 접근을 통하여 시사하는 한 가지 방향이다.

또한, 보육 시설에서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의 지적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교화 및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이와 같은 가정적 환경의 기본선을 제공하여 '경험의 동질화'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예컨대, 영양과 건강, 신뢰감 및 애착의 형성, 대근 운동 및 소근 운동의 기회 제공, 기본적 생활 습관의 형성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결정적 발달 과업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에서 지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학교 교육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지나친 조기 교육의 강조는 인간 발달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향이며, 영유아의 올바른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90% 이상¹⁾을 차지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영리적 목적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국가 보조의 보육시설 형태로 전환되어 보육시설이 '공공가정'의 개념으로 변화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가정의 개념에 입각한 보육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형식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에게 일차적으로 가정적 분위기를 극대화되 가정 양육의 약점을 보완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어린 자녀와 성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공유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으며, 급속히 추진된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틀이 붕괴되고 새로운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능력 부재 현상이 심화되어온 우리나라의 육아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형태로서 전문화된 보육 시설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을 지원·보충하는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나 역할 분담 등을 보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개별가정 중심의 양육 관련 연구 결과를 보육 시설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부모됨의 모형은 좋은 보육 교사의 모형으로 변역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가정의 양육환경의 조건은 좋은 보육 시설의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에 맞춘 양육의 프로그램은 시설의 보육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제한된 영리추구의 단위로서 보육시설의 관리 방안

1) 보육시설 25,319개소 중 국공립은 5.3%(1,344개소), 민간시설은 93.8%(23,741개소), 직장 0.9%(234개소)로 집계되어 있음 (<http://www.mogef.go.kr>).

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원 방안의 개발과 같은 홍보 정책이나 재무, 인사, 기획 등의 경영의 원리를 보다 공공가정으로서의 보육시설에 용이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개별가정의 원리와 기업의 원리의 일부를 채택하여 공공가정의 개념을 보육시설에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들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때 올바른 의미의 보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의 보육 프로그램은 다수의 영유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근대 교육제도로부터 유래하였다. 현행의 보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정도는 약하다 할 수 있겠으나, 보육과정 역시 좋은 교육(혹은 보육)의 종류는 한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즉, 보육에 대한 철학, 가치관 및 교육 목표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며, 보육 프로그램과 운영관리는 그러한 교육목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의 구체적 상황은 고려될 수 없으며 부모나 교사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135-136). 이렇듯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현재 건강한 가정이든 혹은 그렇지 못한 가정이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미래의 보육 서비스는 '건강가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보육 서비스는 '가정의 총체적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의 기능을 지원·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아동학에서 연구해 왔던 연구 영역, 즉,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 전기, 유아 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 중·후기까지를 포함시키며, 이에 따라 영아기 보육, 유아기 보육, 아동기 방과후 보육, 청소년기 및 청년기 생활 적응 지도가 보육의 주요 실천적 영역이라 보고,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연령별 전문가로 세분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이순형(1999)의 방향 제시는 보육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가정의 양육 기능에서 전폭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출생 이후 초기 단계의 영유아를 주요한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가정의 요구에 따라 24시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영유아기 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보육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다루기보다는, 주부의 취업, 가족의 생활 주기·생활양식,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총체적 가정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적 방향에서 앞으로의 보육은, 인간 발달 전반

기의 보다 포괄적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직과 운영 원리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장기 취업모를 위한 대리모 역할제, 독자를 위한 형제 관계 조직의 통합반 운영, 유휴 노인 인력의 시설 투입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 및 가족 상담소,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기존의 관련 조직과 연계되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정학적 관점의 보육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맞추어 보육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 보육 프로그램 내용의 표준화, 보육 시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재고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1980). 가정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18(2), 57-68.
- 김난도(1998). 공공가정론의 철학적 제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47-57.
- 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장진경, 김연화, 한은주, 류진아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2004년 서울시 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2), 185-197.
- 김선희(1997). 공공가정의 인력관리 특성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149-158.
- 김호권(2001). 이연섭, 김호권(편). 학령기의 가정교육. 흔들리는 가정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두경자(2003). 소규모 노인공공가정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2), 187-205.
- 문수재(1993). 인간생활과 가정학.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수학사.
- 문숙재, 송혜림, 김선희, 이기영, 김난도, 김순미, 박미석, 조희금(1999). 공공가정경영. 서울: 학지사.
- 송혜림(1997). 수행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가정의 개념과 경영원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135-147.
- 송혜림, 권혜진, 기은광, 김선우, 김소영, 채화영(2004). 초기 건강가정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65-93.
- 송혜림, 김선우(2005). 공공가정경영 하위체계의 이론적 틀 고찰과 재구성 -마케팅 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2), 93-110.
- 심준섭(2003).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대한가정학회지, 41(9), 191-208.

- 양옥승, 김영옥, 김현희, 신화식, 위영희, 이 옥, 이정란, 이차숙, 정미라, 지성애, 홍혜경(1999). 영유아보육개론. 서울: 학지사.
- 유영주, 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I.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 윤숙현(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6(2), 235-246.
- 이기열(1989).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 제 42차 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23.
- 이기영(1998).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 인간과 생활환경. 서울: 학지사.
- 이순형(1999). 아동학 전공자의 사회 공헌 평가와 그 전망. 대한가정학회 제 52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4-70.
- 이 옥(1999). 아동연구는 아동문제의 사회화에 기여했는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6차 학술대회 자료집, 26-44.
- 이희자, 정영숙(1987). 아동·가족학 분야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2-28.
- 정민자(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 방향과 내용. 대한가정학회지, 41(9), 163-177.
- 조희금(1997). 공공가정관리사의 역할 및 제도화에 대한 시론적인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119-133.
- 조희금, 김경신, 정미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2005).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 조희금, 박미석(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 한국교육교사회(2006). 돌봄의 보육 -관계중심의 교육, 그 시작을 위하여-. 서울: 교육과학사.
- 현은강(1998). 아기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인간과 생활환경. 서울: 학지사.
- Buboltz, M. M. (1994). *Integration in Home Economics and Human Ecology*. 윤복자. 가정학 인간생태학의 통합.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111-132.
- Holmes, J. (1993). 이경숙(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2005년 12월 30일 접수, 2006년 3월 27일 채택)